

악성 민원 '나주 축산악취' 민·관 협력해 잡는다

市, 정부·도·축산농·주민 협의체 발족
10월까지 축사 5곳 상시 점검·컨설팅
원인 진단·중장기적 개선 방안 마련

나주시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관이 협력해 '나주 축산악취'를 해결하기로 했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최근 전남도, 축산환경관리원 악취개선TF팀, 축산농가, 주민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된 '나주 축산악취 개선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우선 오는 10월 말까지 봉황면에 소재한 양돈 농가 5곳을 개선농가로 지정, 악취 원인 진단을 위한 상시 현장 방문과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가족분뇨 악취관리계획서 작성 등 중·장기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악취 개선 효과도 검증한다.

또 매주 수요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10개 지역의 축산악취개선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고속도로·혁신도시·신도시 인근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악취 개선 의지가 강한 10곳을 선정, 전문가 현장진단을 실시했다. 선정 지역에 나주시와 전북 김제시 등이 포함됐다.

나주 봉황 등 이들 지역은 축사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시설 미비, 축사 내 슬러리 피트(배설물을 모으는 장치)와 깔짚 관리 미흡, 충분히 썩지 않은 퇴비·액비(액체 비료)를 쌓거나 살포하는 등 농가의 관리 미흡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축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거나 퇴액비 부숙(썩힌)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등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단기 대책과 함께 축사·가족분뇨처리시설 밀폐화, 악취 저감시설 보완 등 시설 개선을 통한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창기 나주시 축산과장은 "축산악취 문제는 축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자 필수적인 해결 과제"라며 "악취 개선 민관 협의체의 컨설팅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주민 민원과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최근 나주지역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축산악취 개선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나주시 제공>

강진군 폭염 저감물품 지원
쿨토시·쿨매트 등 2530개



강진군은 최근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쿨토시·쿨스카프·쿨매트 등 폭염 저감물품 2530개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진군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사진)하는 한편 이용자들에게 폭염 안전수칙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다시 한 번 알려며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한 마을회관 이용자는 "더운 여름 걱정이 많은데 이렇듯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폭염 때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은 많이 마셔야 한다"며 "특히 어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의 출몰 경우에는 진안적·이웃 등에 꼭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 출신 독립운동가 5명 광복절 독립유공자 선정 포상

오일록·장희진·강석홍·강충원·이두추
3·1절 13명 이어 '의향 장흥' 기치 높여

장흥지역 독립운동가 5명이 독립유공자로 새로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

24일 장흥문화원에 따르면 광복절을 맞아 장흥 출신 5명의 독립운동가가 포상을 받아 '의향 장흥'의 기치를 드높였다. 앞서 3·1절에는 13명의 장흥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

이번에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오일록·강석홍·강충원·이두추·장희진 선생이다.

오일록(1877-미상) 선생은 장평면 대평리 출신으로 1909년 전북 무주군, 경남 함천군, 경북 지례군(현 김천시)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하다 체포돼 폭동 등 죄명으로 징역 5년의 옥고를 치렀다. 이후 일제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에 저항하여 평양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보안법 위반으로 다시 체포됐다.

대덕읍 출신의 강석홍(1913-1951)·강충원(1912-1979)·이두추(1909-1980) 선생은 1933

년 사회주의 독립운동 비밀결사인 전남운동협의회에 가입, 농민조합과 농민야학을 통해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1934년 1월 일제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안양면 모령리출신인 장희진(1908-1958) 선생은 1930년 장흥청년동맹 간부로 활동했으며, 1934년 1월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체포돼 1935년 12월까지 2년여 옥고를 치렀다.

장흥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을 하고 있는 문충선 장흥문화원 이사는 "항일 의병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까지 수많은 장흥의 독립지사들이 활동했지



장희진 선생

만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문화원은 지난 2018년부터 '문림의향 장흥역사 자원 발굴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순국선열의 날에 고삼현(용산면 운주리) 선생과 올해 3·1절에 최두용(용산면 운주리) 선생과 박기평(장평면 양촌리) 선생 등을 발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세얼굴

"감동치안으로 신뢰 받는 강진경찰 만들 것"

박승기 강진경찰서장



기동대장, 서울 동작서 청문감사관, 서울청 22경찰경호대 부대장, 202경비대 경비과장 등을 역임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치안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박승기(58) 강진경찰서장은 "33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의 치안을 책임지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신임 서장은 "군민과 함께하는 감동치안으로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진경찰을 만들

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항상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로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진 도암면 출신인 박 서장은 1986년 순경 공채로 입문해 경기청 2

'장성군민의 상' 농업·복지 등 5개 부문 후보자 추천

9월 1일까지...28일 군민의 날 시상

장성군이 2020년도 '장성군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장성군은 대내외적으로 장성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공헌한 군민이나 단체에 '제42회 장성군민의 상'을 수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수상 분야는 ▲교육·문화·예술 ▲사회복지 및 체육 ▲향토방위 ▲산업경제 ▲농업 등 5개 부문이다.

자격 요건은 도 단위 이상의 공식 대회나 전시회,

학술연구 등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거나 창의·개발 정신을 보여줘 국가적 보존 가치를 공인받는 등 각 분야에서 현저한 공이 인정된 경우다.

추천은 개인 또는 기관·단체장, 읍·면장이 할 수 있다. 단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주 20인 이상의 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장성군은 '장성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1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은 오는 9월 28일 '장성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 기관·단체장 모임 '금라회' 1000만원 상당 재해물품 기탁



나주지역 주요 기관·단체장 모임인 '금라회'가 최근 수해 이재민들을 위해 1000만원 상당 재해구호물품 기탁했다.

<사진> 박래춘(농협 나주시지부장) 금라회 총무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과 수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위료가 되길 바란다"며 "이재민 모두가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구 나주시장은 "어려운 시기 나눔에 동참한 금라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재민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